

양심(良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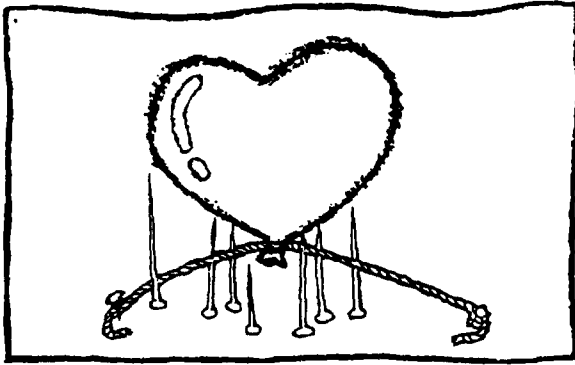
로마서 2 : 14-16

이명직 목사 (1896. 12. 2~1973. 3. 30)은 한국성결교회 사부님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본란을 통하여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1. 양심이란?

사 람에게는 자기 사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기능은 우리 심성(心性)의 사법관(司法官)이라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며 시민들의 생활이 안전하도록 보호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 생애 매 순간마다 시비간(是非間)에 간섭하여 우리를 정의(正義)로 지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살게 한다. 가령, 눈으로 무엇을 볼 때에나, 귀로 무슨 말을 들을 때에나, 입으로 무슨 말을 할 때에나, 손으로 무엇을 만질 때에나, 큰 일에나 작은 일에 있어 양심이 활동하고 간섭하는 것을 그 직무

(職務)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양심의 지도를 잘 받으면 한 평생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높이 서있어도 두렵지 않은 생애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체로 양심의 소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영에 들린다. 가령 길 가운데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보통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음성이 들릴 것이다. 첫번째 소리는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군'하는 소리이고, 두번째 소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집어 가지라'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를, '그 물건은 너의 것



도 함께 포함하신 것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 그러나 그 다 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 물건은 주인이 없는 것이니, 네가 가져도 좋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있어 사람이 첫번째 소리에 순종하여 행동을 분명히 하면 안연담대(安然膽大) 할 것이지만, 만일 첫번째 소리를 배척하고, 두번째 소리를 받아드릴 경우에는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급한 걸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사람이 보지 않는데서 행했을지라도 마음에 있는 양심이 번개불 같은 눈으로 움치 못함을 책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2. 양심의 기원

양심은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조성하실 때부터 이 양심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 : 16~17)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양심에 호소하심이다. 이것이 양심의 출발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만일 아담에게 양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주셨을리가 만무하다. 그런즉 사람이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게에는 영혼이 있는 동시에 양심이 있어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양심이 있었다는 더욱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으로 먹은 후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니, 이는 곧 그 양심이 그에게 계명을 어기고 행한 일을 책망했기 때문이다. 과연 사람에게에는 양심이 있어야 도덕도, 종교도, 법률

양심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즉시로 간섭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의 결과가 나타난 후에는 더욱 날카롭고도 엄숙한 음성으로 책망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한다.

도, 윤리도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 양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사회는 금수(禽獸)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3. 양심의 직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행 2:37).

양심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즉시로 간섭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의 결과가 나타난 후에는 더욱 날카롭고도 엄숙한 음성으로 책망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를 회개로 인도한다.

가령 자기가 아무도 없는 암실(暗室)에서 혼자 한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책망이 오는 동시에, 열 손가락이 가르키는 듯 부끄러우며, 열 눈이 보는 듯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그의 양심이 그 죄에 대하여 견책하기 때문이다. 가령 살인

한 사람이 법관을 볼 때에 자연히 두려운 생각이 생기고, 음란한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찢림이 오고, 도적질한 일이 있든지 또는 도적질한 물건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그것은, 비밀리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비록 타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여도 자기 양심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이끌고 예수께와서, 돌로 쳐죽이겠다고 고발할 때에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하시니, 한 사람도 감히 돌을 들어 던지지 못하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 까지 하나씩 하나씩 피하여 나아감은 무슨 연고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에서 양심이 활동했기 때문이다. 양심의 빛은 번개보다 더 밝고 우뢰보다도 그 소리가 더 크다. 그래서 죄가 한번 마음에 기억되고 그 흔적이 행위 위에 있는 동안에는 자연히 잊혀지지도 않고 고의(故意)로도 잊게 할 수도 없다.

밤은 깊어 달빛은 은은히 창에 비치고 온갖 별레소리가 들려와 홀로 있는 자신이 더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

양심에 만일 자연적인 도덕성이 없다면 가르친다고 하여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땅 속에 물이 있음으로 땅을 파면 물이 나는 것과 같이 도덕이 없는 양심은 없고, 양심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도덕도 있을 수 없다.

길 때가 있다. 이런 때 그윽하고 맑고 깨끗한 달빛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비추는 듯하여 깊은 산골짜기와 나무 숲속 새 사이를 거닐며 대자연에 몸을 숨겨 보지만 양심의 소리는 더욱 커져서 고통을 더하게 하는 일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신성한 양심은 죄인의 심령을 비수와 같이 날카롭게 찌른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찌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일이 종종 있으나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죽으면 모든 만사가 해결될 줄 알고 그리하지만, 자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사람은 죽으나 양심은 죽지 않고 그의 영혼을 따라가서 심판대 앞에 까지 서게 된다.

4. 양심과 도덕성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 : 15). 도덕에 대한 의무를

아는 것은 양심의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가르치지 아니 하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악을 버리고 선을 좇는 것이 좋은 줄로 아는 것이다. 가령 넘어지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붙들어주게 되는 것은 자연의 도덕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순간적인 일이다. 옛부터 도덕과 예의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요, 신의 글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도덕을 글로써 엮어 발표한 것이 도덕이다. 이를 순종하여 실행하는 자는 선한 사람이다. 문자와 도덕이 없는 야만이라 해서 모두가 살인강도인 것은 아니다. 그 지방에서도, 아비는 어질고 자식은 효도하며, 젊은이는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는 질서가 정연한 것은 그 양심에 새겨진 도덕성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양심에 만일 자연적인 도덕성이 없다면 가르친다고 하여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땅 속에 물이 있음으로 땅을 파면 물이 나는 것과 같이 도덕이 없는 양심은 없고, 양심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도덕도 있을 수 없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여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비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양심은 시비(是非)라 하든 지 선악(善惡)의 중간에 서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 한다.

5. 양심의 판단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 : 15). 양심은 공정한 재판관과도 같아서 가(可)한 것은 절대 가(可)하다 하고, 부(否)한 것은 절대 부(否)하다 하며, 선(善)한 것은 선(善)하다 하고, 악(惡)한 것은 악(惡)하다 하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여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비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양심은 시비(是非)라 하든 지 선악(善惡)의 중간에 서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이 양심의 판단을 좇아 무슨 일이든 행하면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양을 많이 치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으나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기 위하여 자기 가축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비유하여 고백했다. 그때 다윗은 노를 발하여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고 말할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직언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할 때에 다윗이 비로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삼후 12 : 1~13)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곧 양심의 판단이었다. 양심의 판단은 예민하고 권위가 있다. 그 판단은 모호한 것이 없으므로 속일 수가 없다.

6. 양심의 회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나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롬 1 : 19). 양심에 만일 의식(意識)이 없다면 두리몽실 할 수밖에 없다. 시비선악(是非善惡)을 판단하여, 사람이 서있는 자리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며, 또한 알게 모르게 죄를 책하여 사악(邪惡)한 것을 버리고 정의로 돌아오게 하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에게도 불의한 일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며 선한 길을 열어주고 악의 행위를 제재한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작용이지 무의식적으로 나타

양심의 모든 기능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다. 이 의식 중에서 제일 고상한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람이 병들면 어머니를 부르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양심의 의식에서 부터 자연히 발하는 제 일성(一聲)이다.

나는 기계적(機械的)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모든 기능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다. 이 의식 중에서 제일 고상한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람이 병들면 어머니를 부르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양심의 의식에서 부터 자연히 발하는 제 일성(一聲)이다. 어느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뜻하지 않던 광풍노도(狂風怒濤)를 만나서 수백의 인명(人命)을 태운 배가 파선할 위기일발(危機一髮)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모 신문지(新聞紙)에 “무신론자 아무개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주장할 무신론이라”고 풍자하여 실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비록 무신론까지라도 주장하지만 그 양심에는 마치 유아가 그 어머니를 찾음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은근하다. 이는 곧 양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7. 賢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한 자들이라” (딤후 4 : 2).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 1 : 15). 양심이라 함은 본래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양심이 더러워지며 화인을 맞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양심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정욕에 끌려 어둠의 일을 행하며 방임해두었기 때문이다. 가령 무슨 일이 있어 행하려 할 때에 물론 양심이 간섭하여 금지하되, 자기를 합리화 하여 자신이 행하는 불의한 일이 큰 죄가 아니라 하거나, 혹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거나, 혹은 습관문제라 하거나, 혹은 사회제도의 관제라는 등 구실을 붙여서 한번 양심을 거스르고, 두번 거스리고, 세번 거스리고 자위하고 양심을 억누르다 보면 양심은 감각이 둔하여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며 권위를 잃고 양심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사람은 한 악한(惡漢)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지경에 이르고 보면 양심은 마치 열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양심이 그

본능적인 의무를 잘 행하지만 그러나 만약 범죄하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가련한 형편에 이르게 된다. 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의 상태이다.

와 가시의 찔림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손바닥처럼 되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이 양심을 죽인 후에는 모든 악을 입의로 제재하지 못하고, 멋대로 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도리어 악과 죄를 행하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사 5 : 20) 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나 그러나 완전히 죽어 다시는 활동할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힘이 강할 때에 양심의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며, 죄악의 열도가 내려갈 때에 양심의 생명이 운동하여 조용하고 고요할 때에 양심이 작동하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양심이 그 본능적인 의무를 잘 행하지만 그러나 만약 범죄하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가련한 형편에 이르게 된다. 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의 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양심은 제 자리를 회복하며, 성령충만,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양심의 빛을 발휘하게 된다. **▶▶▶**

(지난호의 본란에 게재된 '증생'의 67쪽 왼쪽 아래서 셋째줄의 "증생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오기된 것을 "증생은 증생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요, 결코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것도 아니다" 로 바로잡습니다.)

〔본고는, 이명직 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발행인 홍순목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